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힘겹게 열린 위드 코로나의 문이 곧 다시 닫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는 어두운 기운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삼킬 듯합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짓눌리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나눔의 촛불을 밝힙니다. 이 나눔의 촛불이 욕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미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결핍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눔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신 나눔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 62:1,2 인도자
- ▲ 교 독 문 117. 구주 강림(3)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박성희 권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99. 주님 앞에 떨며 서서 다 함께
- ▲ 성경봉독 눅 3:10~14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I. 박영신 권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I. 그가 오신 이유	마중물찬양대
	II. 그 크신 이름	청파찬양대
말 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465. 주 믿는 나 남 위해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p>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 따뜻하고 소박한 길이 구원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p> <p>다 함 께 : 아멘. 자주 걱정애 휩쓸리고 욕심에 이끌리며 향방 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생명의 길로 삼고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욕심을 멀리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p>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법석
	2부 김기석	김정민	강세기	김재홍

